

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.1억 달러(+0.1%, 신고기준) 기록

-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실적 역대 2위 달성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유망 분야 투자 확대, 한국 투자에 대한 신뢰 지속

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(신고기준)는 전년 동기 대비 0.1% 증가한 64.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. 1분기 도착액 또한 71.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.

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*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.

* UNCTAD 「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」(26.1) : 지정학적 긴장, 지역 분쟁, 정책 불확실성 및 경제 분절화 등 지속으로 '26년 FDI 프로젝트 위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

특히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,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, 역대 최대 실적(360.5억 달러)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세부적인 투자 실적(신고기준)을 살펴보면,

[유형별] ▲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.8% 감소한 37.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▲M&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.4% 증가하며 26.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[업종별] ▲제조업은 전년 대비 47.6% 감소한 12.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세부적으로는 전기·전자(3.7억 달러, △30.1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0.4억 달러, △75.6%)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였으나, 화공(4.0억 달러, +4.5%), 비금속광물(1.8억 달러, +23.9%)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되었다.

한편, ▲서비스업은 43.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.5% 증가하였다.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, 특히 금융·보험(26.2억 달러, +21.2%), 유통(5.7억 달러, +43.0%), 정보통신(2.4억 달러, +183.6%)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.

[국가별] ▲미국은 정보통신, 화공,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.0억 달러를 기록, 전년 대비 20.9% 증가하였다. ▲EU의 경우, 화공, 전기·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의약, 금융·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.3억 달러를 기록, 전년 대비 4.1% 감소하였다. 한편, ▲일본은 3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.1% 감소하였으며, ▲중국도 2.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.4%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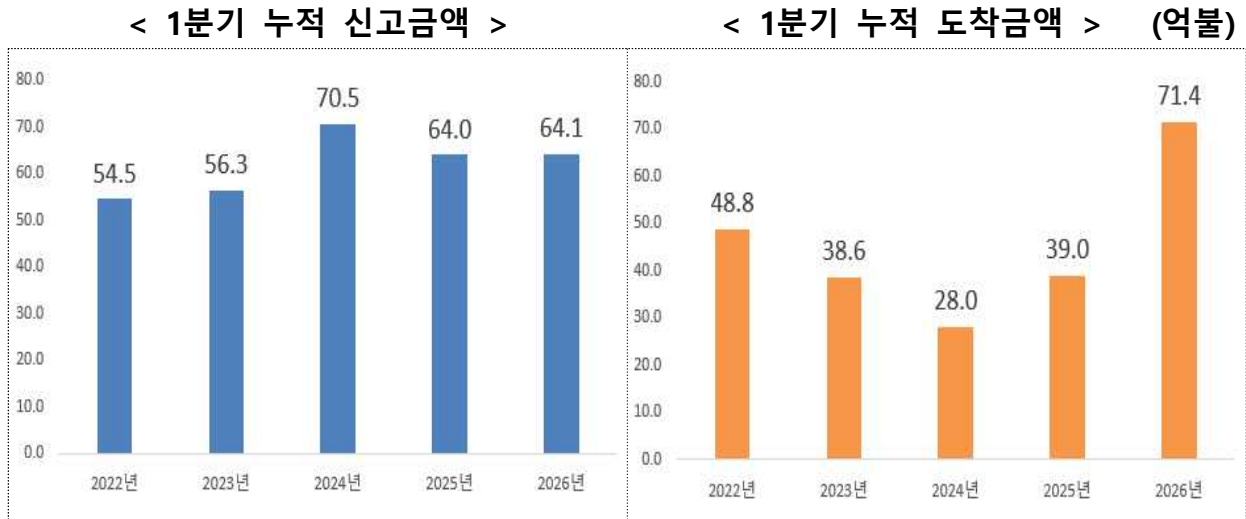
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,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 - 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- 본 자료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6년 2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6년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정예 (044-203-4080)
	투자유치과	담당자	사무관	성제민 (044-203-4082)
			사무관	김해원 (044-203-4086)

I. 총괄

① (실적) **신고 64.1억불**(전년대비 +0.1%), **도착 71.4억불**(+82.9%)



② (신고) 반도체·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 및 M&A 투자 증가

- (유형) 그린필드 37.4억불(△19.8%), M&A 26.7억불(+53.4%)
- (업종) 제조업 12.4억불(△47.6%), 서비스업 43.3억불(+21.5%)
- (국가) 美 10.0억불(+20.9%), EU 14.3억불(△4.1%),
日 3.5억불(△71.1%), 中 2.7억불(△19.4%)

③ (도착) '25년 1분기 도착 실적(39억불)을 돌파, **역대 1위**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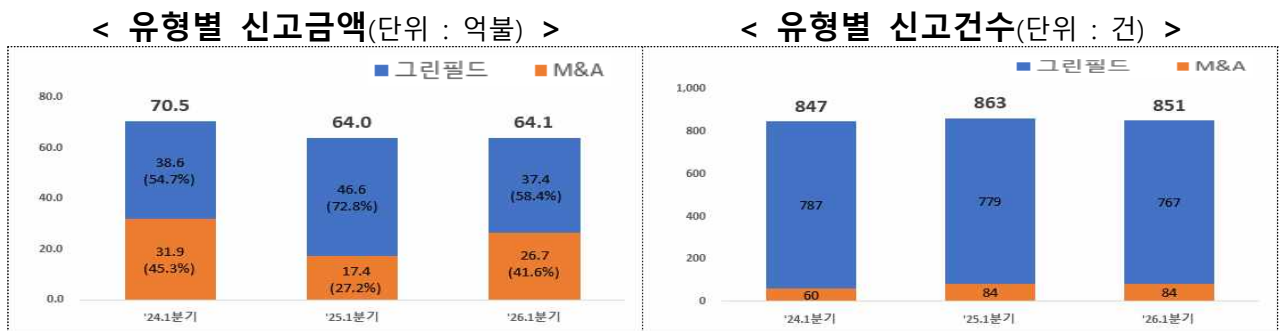
- (유형) 그린필드 18.5억불(△4.2%), M&A 52.9억불(+168.4%)
- (업종) 제조업 38.4억불(+537.6%), 서비스업 32.2억불(+3.6%)
- (국가) 美 6.2억불(+173.5%), EU 38.3억불(+183.8%),
日 1.6억불(+22.0%), 中 0.7억불(+13.8%)

II. 세부 동향

【투자신고】

1. 유형별

- (금액) 그린필드(37.4억불, △19.8%, 비중 58.4%) 감소
M&A(26.7억불, +53.4%, 비중 41.6%) 증가



- (그린필드) 37.4억불(전년비 △19.8%)
 - 제조업(11.5억불, △45.6%), 서비스업(17.4억불, △15.2%) 모두 감소
- (M&A) 26.7억불(전년비 +53.4%)
 - 제조업(0.6억불, △68.8%) 감소, 서비스업(25.9억불, +71.1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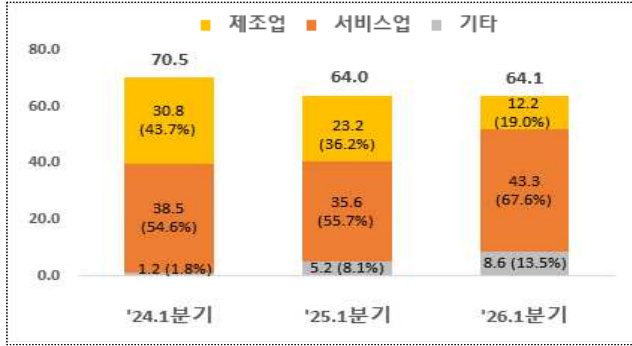
- (건수) 그린필드(767건, △1.5%) 감소, M&A(84건, -) 전년 동일

2. 업종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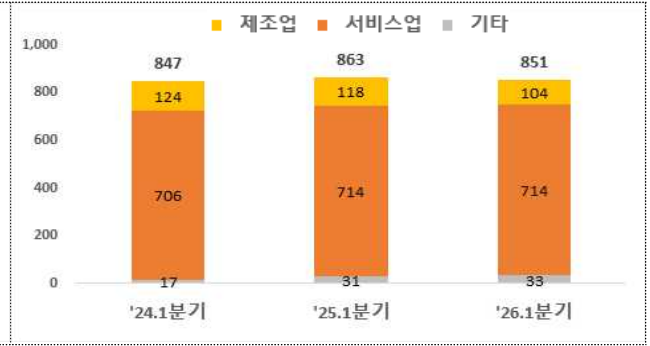
- (금액) 서비스업(43.3억불, +21.5%, 비중 67.6%)·기타업종(8.6억불, +67.2%, 비중 13.5%) 증가, 제조업(12.4억불, △47.6%, 비중 19.0%) 감소

* 기타업종 : 1차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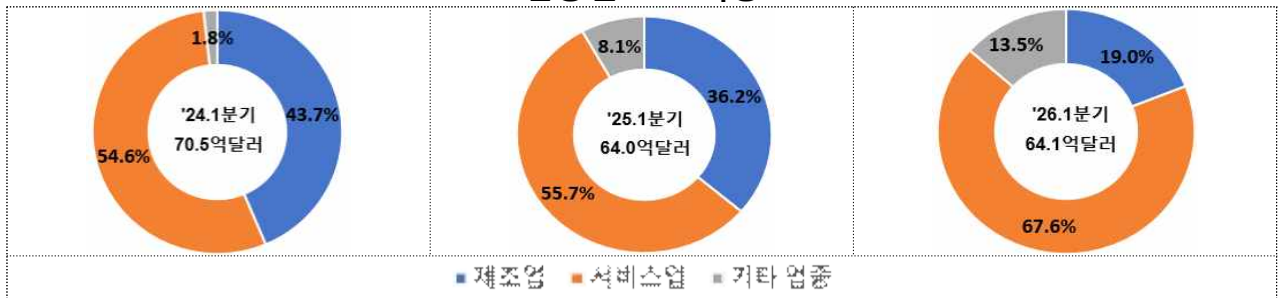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신고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업종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>



< 업종별 FDI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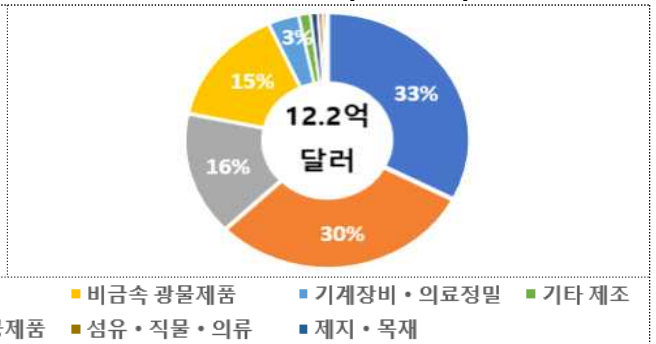


○ (제조업) 12.4억불(전년비 △47.6%, 비중 19.0%)

< '25년 1분기 신고액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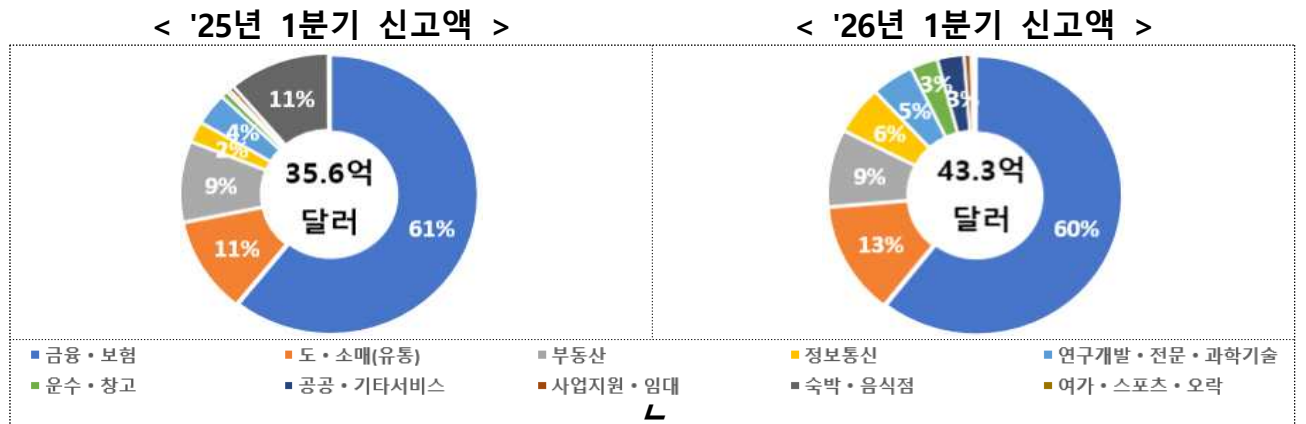
< '26년 1분기 신고액 >



- (증가업종) 화학(3.97억불, +4.5%), 식품(1.90억불, +2,152.3%), 비금속광물(1.81억불, +23.9%) 등

- (감소업종) 전기·전자(3.65억불, △30.1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0.42억불, △75.6%), 의약(0.11억불, △97.0%) 등

○ (서비스업) 43.3억불(전년比 +21.5%, 비중 67.6%)



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26.22억불, +21.2%), 도·소매(유통)(5.65억불, +43.0%), 부동산(3.87억불, +16.3%) 등
- (감소업종) 숙박·음식(0.12억불, △97.0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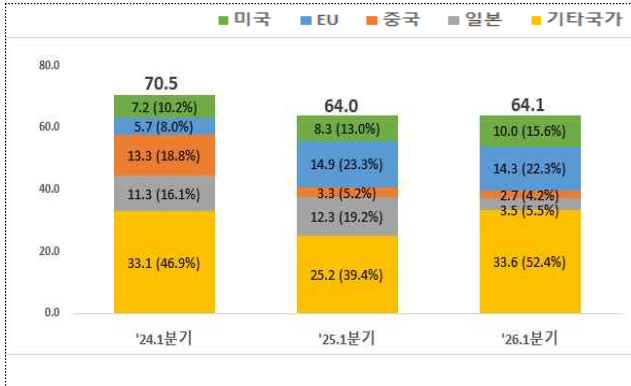
□ (건수) 제조업(104건, △11.9%) 감소, 서비스업(714건, -) 전년 동일, 기타업종(33건, +6.5%) 증가

3. 국가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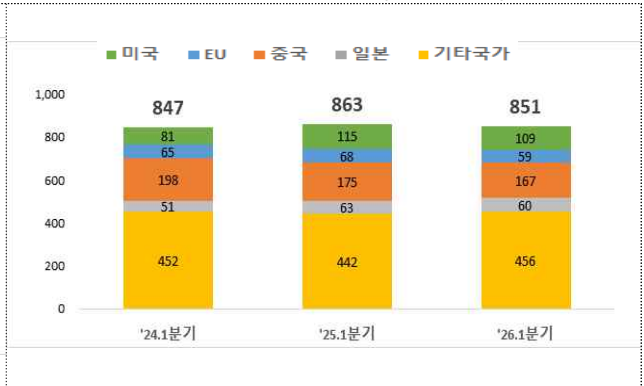
(* EU : 영국 제외 27개국)

- (금액) 미국(10.0억불, +20.9%, 비중 15.6%)·기타국가(33.6억불, +32.9%, 비중 52.4%) 증가, EU(14.3억불, △4.1%, 비중 22.3%)·중국(2.7억불, △19.4%, 비중 4.2%)·일본(3.5억불, △71.1%, 비중 5.5%) 감소

< 국가별 신고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국가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>



- (미국) 10.0억불(전년比 +20.9%, 비중 15.6%)
 - (업종별) 제조업(3.9억불, +129.4%) 증가, 서비스업(6.1억불, △2.1%)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9.6억불, +29.6%) 증가, M&A(0.4억불, △51.7%) 감소
- (EU) 14.3억불(전년比 △4.1%, 비중 22.3%)
 - (업종별) 제조업(3.5억불, △27.4%), 서비스업(2.7억불, △71.7%) 모두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13.4억불, +22.0%) 증가, M&A(0.9억불, △76.7%) 감소
- (중국) 2.7억불(전년比 △19.4%, 비중 4.2%)
 - (업종별) 제조업(1.2억불, △36.6%) 감소, 서비스업(1.4억불, +608.4%)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2.2억불, △33.2%) 감소, M&A(0.5억불, +5,321.6%) 증가
- (일본) 3.5억불(전년比 △71.1%, 비중 5.5%)
 - (업종별) 제조업(1.4억불, △86.7%) 감소, 서비스업(2.1억불, +26.7%)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2.9억불, △75.6%) 감소, M&A(0.6억불, +110.5%) 증가

- (기타국가) 33.6억불(전년比 +32.9%, 비중 52.4%)
 - (업종별) 제조업(2.1억불, △48.9%) 감소, 서비스업(30.9억불, +73.0%)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9.3억불, △28.3%) 감소, M&A(24.2억불, +97.9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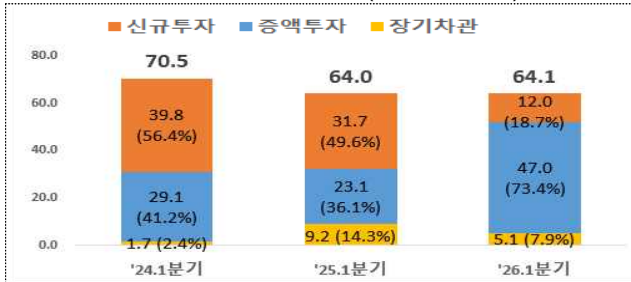
□ (건수) 기타국가(456건, +3.2%) 증가, 미국(109건, △5.2%)·EU(59건, △13.2%)·중국(167건, △4.6%)·일본(60건, △4.8%) 감소

4. 자금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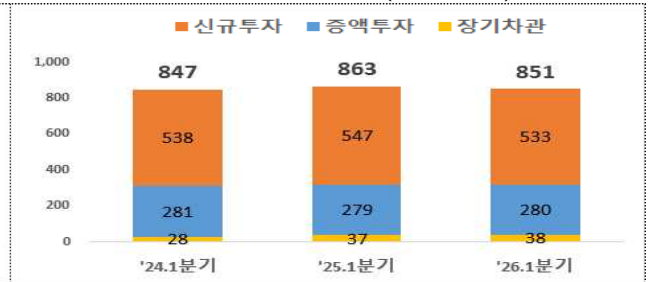
□ (금액) 증액투자(47.0억불, +103.4%, 비중 73.4%) 증가, 신규투자(12.0억불, △62.3%, 비중 18.7%)·장기차관(5.1억불, △44.7%, 비중 7.9%) 감소

- * 신규투자 :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(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)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
- 증액투자 :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,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
- 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신고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자금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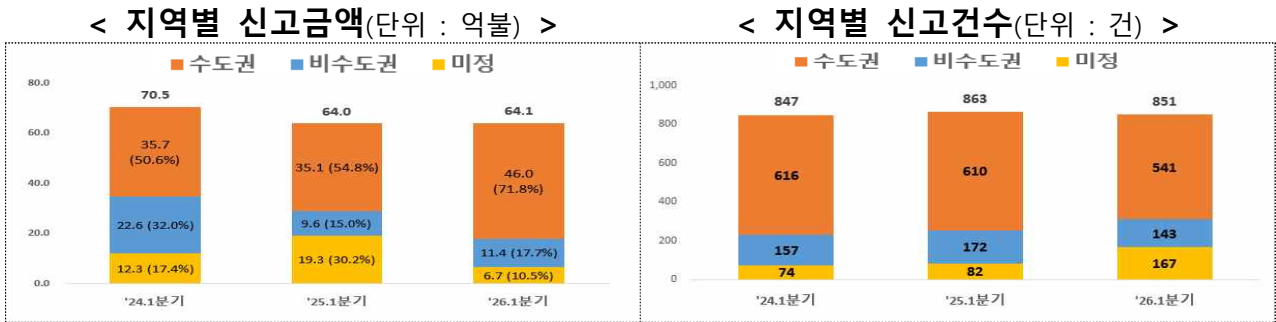


- (신규투자) 12.0억불(전년比 △62.3%)
 - 제조업(4.7억불, △68.4%), 서비스업(7.1억불, △53.3%) 모두 감소
- (증액투자) 47.0억불(전년比 +103.4%)
 - 제조업(5.7억불, △16.6%) 감소, 서비스업(32.9억불, +115.5%) 증가
- (건수) 신규투자(533건, △2.6%) 감소, 증액투자(280건, +0.4%) 증가

5. 지역별

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 미정(6.7억불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□ (금액) 수도권(46.0억불, +31.1%, 비중 71.8%)·비수도권(11.4억불, +18.1%, 비중 17.7%) 증가, 투자지역 미정(6.7억불, △65.1%, 비중 10.5%) 감소



○ (수도권) 46.0억불(전년비 +31.1%)

- 제조업(4.3억불, △13.6%) 감소, 서비스업(38.5억불, +29.8%) 증가

* 서울(39.0억불, +45.4%), 인천(0.6억불 △82.6%), 경기(6.3억불, +32.7%)

○ (비수도권) 11.4억불(전년비 +18.1%)

- 제조업(4.1억불, △16.0%) 감소, 서비스업(1.8억불, +53.4%) 증가

* 증가 시도 : 울산(5.41억불, +1,829.3%), 충남(2.62억불, +97.9%),
 전북(1.28억불, +24,756.8%), 세종(0.14억불, +1,038.9%),
 제주(0.07억불, +109.4%), 광주(0.02억불, +141.6%),
 대구(0.01억불, +51.7%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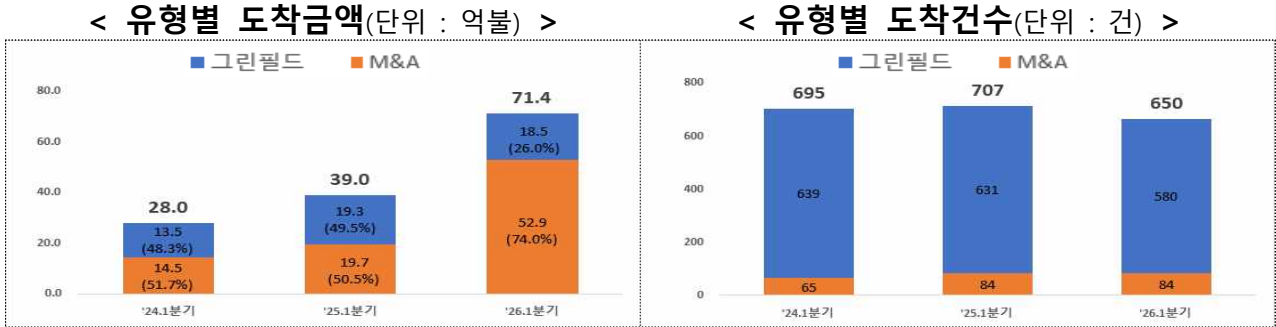
* 감소 시도 : 강원(0.51억불, △12.5%), 전남(0.43억불, △69.4%),
 경북(0.32억불, △68.7%), 경남(0.30억불, △87.7%),
 충북(0.14억불, △63.7%), 대전(0.07억불, △95.2%),
 부산(0.04억불, △94.8%),

□ (건수) 수도권(541건, △11.3%), 비수도권(143건, △16.9%) 모두 감소

【투자도착】

1. 유형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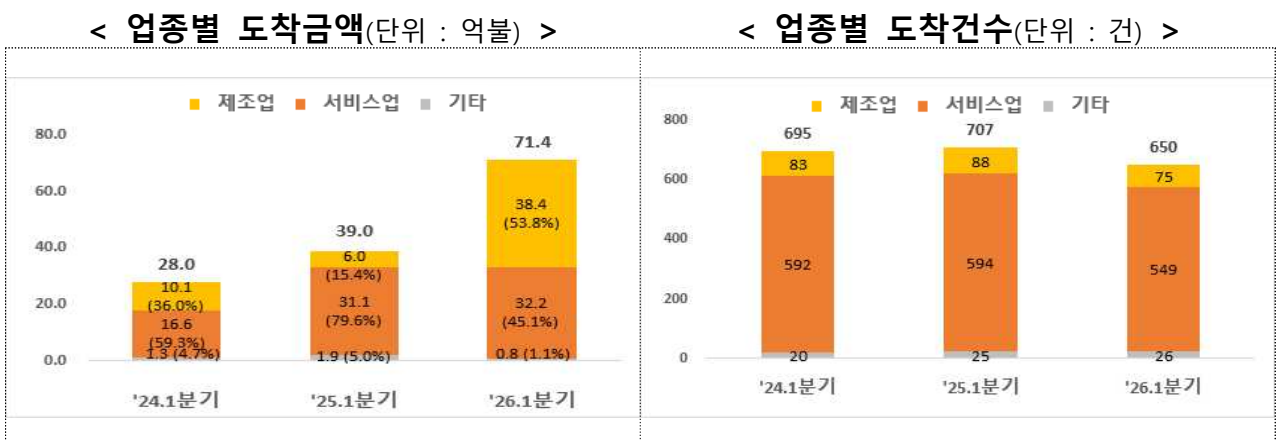
- (금액) 그린필드형(18.5억불, △4.2%, 비중 26.0%) 감소
M&A형(52.9억불, +168.4%, 비중 74.0%)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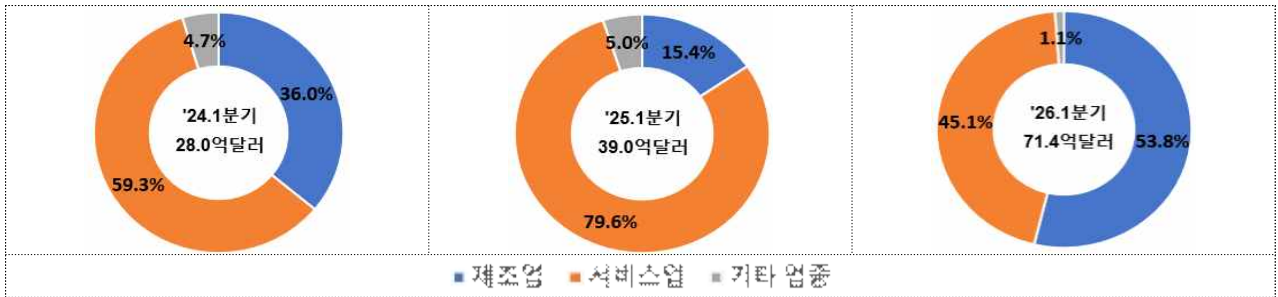
- (그린필드형) 18.5억불(전년비 △4.2%)
 - 제조업(6.5억불, +42.6%) 증가, 서비스업(11.4억불, △12.1%) 감소
- (M&A형) 52.9억불(전년비 +168.4%)
 - 제조업(32.0억불, +2,034.5%), 서비스업(20.8억불, +14.9%) 모두 증가
- (건수) 그린필드(580건, △8.1%) 감소, M&A(84건, -) 전년 동일

2. 업종별

- (금액) 제조업(38.4억불, +537.6%, 비중 53.8%)·서비스업(32.2억불, +3.6%, 비중 45.1%) 증가, 기타업종(0.8억불, △58.4%, 비중 1.1%) 감소
- * 기타업종 : 1차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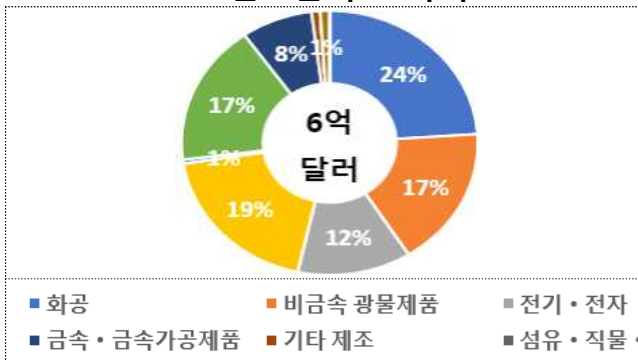


< 업종별 FDI 비중 >



○ (제조업) 38.4억불(전년비 +537.6%, 비중 53.8%)

< '25년 1분기 도착액 >



< '26년 1분기 도착액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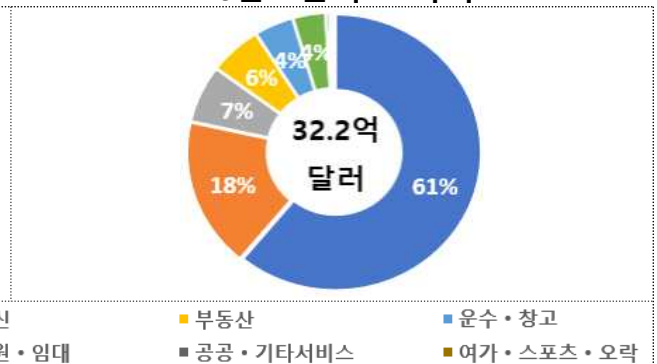
- (증가업종) 화공(35.22억불, +2,343.0%), 비금속광물(1.81억불, +75.9%), 전기·전자(0.85억불, +12.8%) 등
- (감소업종) 기계장비·의료정밀(0.27억불, △76.3%), 의약(0.06억불, △93.8%), 금속·금속가공(0.03억불, △94.7%) 등

○ (서비스업) 32.2억불(전년비 +3.6%, 비중 45.1%)

< '25년 1분기 도착액 >



< '26년 1분기 도착액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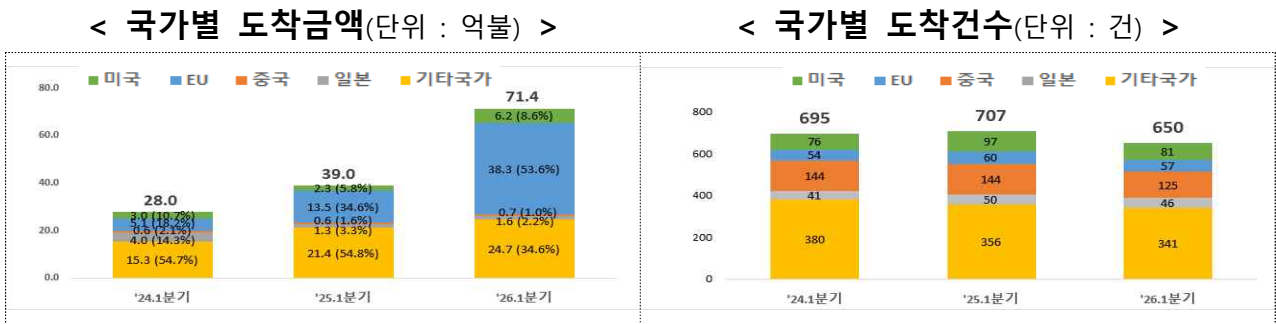
- (증가업종) 도·소매(유통)(5.64억불, +18.7%), 정보통신(2.17억불, +176.6%), 운수·창고(1.41억불, +273.6%) 등

- (감소업종) 금융·보험(19.64억불, △8.6%), 부동산(1.89억불, △13.8%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1.17억불, △1.2%) 등

- (건수) 제조업(75건, △14.8%)·서비스업(549건, △7.6%) 감소
기타업종 (26건, +4.0%) 증가

3. 국가별 (* EU : 영국 제외 27개국)

- (금액) 미국(6.2억불, +173.5%, 비중 8.6%)·EU(38.3억불, +184.1%, 비중 53.6%)·중국(0.7억불, +13.8%, 비중 1.0%)·일본(1.6억불, +22.0%, 비중 2.2%)·기타국가(24.7억불, +15.4%, 비중 34.6%) 모두 증가



- (미국) 6.2억불(전년比 +173.5%, 비중 8.6%)
 - (업종별) 제조업(1.9억불, +52.0%), 서비스업(4.3억불, +324.6%) 모두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5.7억불, +176.6%), M&A(0.4억불, +138.3%) 모두 증가
- (EU) 38.3억불(전년比 +183.8%, 비중 53.6%)
 - (업종별) 제조업(35.0억불, +1,992.7%) 증가, 서비스업(3.2억불, △72.0%)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5.7억불, △31.1%) 감소, M&A(32.6억불, +521.5%) 증가
- (중국) 0.7억불(전년比 +13.8%, 비중 1.0%)
 - (업종별) 제조업(0.6억불, +25.3%) 증가, 서비스업(0.1억불, △15.1%) 감소
 - (유형별) 그린필드(0.3억불, △39.3%) 감소, M&A(0.4억불, +156.8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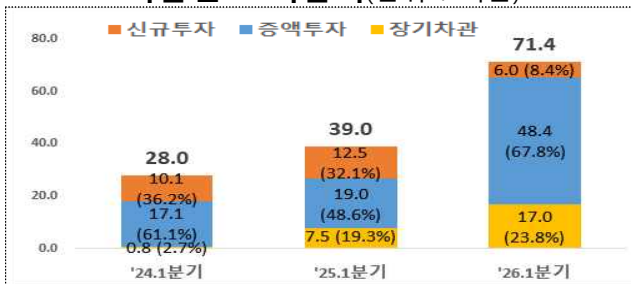
- (일본) 1.6억불(전년比 +22.0%, 비중 2.2%)
 - (업종별) 제조업(0.4억불, △37.9%) 감소, 서비스업(1.1억불, +96.5%)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0.8억불, △29.4%) 감소, M&A(0.8억불, +356.9%) 증가
- (기타국가) 24.7억불(전년比 +15.4%, 비중 34.6%)
 - (업종별) 제조업(0.5억불, △72.9%) 감소, 서비스업(23.5억불, +30.7%) 증가
 - (유형별) 그린필드(6.1억불, △18.7%) 감소, M&A(18.6억불, +33.7%) 증가
- (건수) 미국(81건, △16.5%)·EU(57건, △5.0%)·중국(125건, △13.2%)·일본(46건, △8.0%)·기타국가(341건, △4.2%) 감소

4. 자금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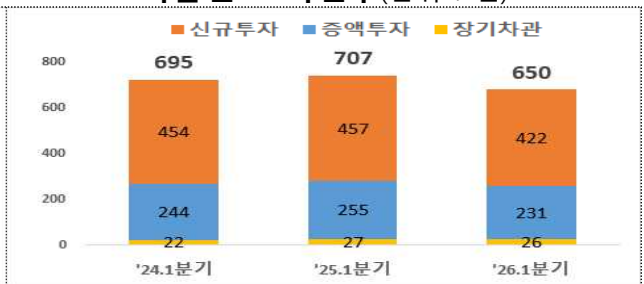
- (금액) 증액투자(48.4억불, +154.9%, 비중 67.8%)·장기차관(17.0억불, +125.8%, 비중 23.8%) 증가, 신규투자(6.0억불, △52.0%, 비중 8.4%) 감소

* 신규투자 : 외국인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(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)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
 증액투자 :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,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
 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도착금액(단위 : 억불) >



< 자금별 도착건수(단위 : 건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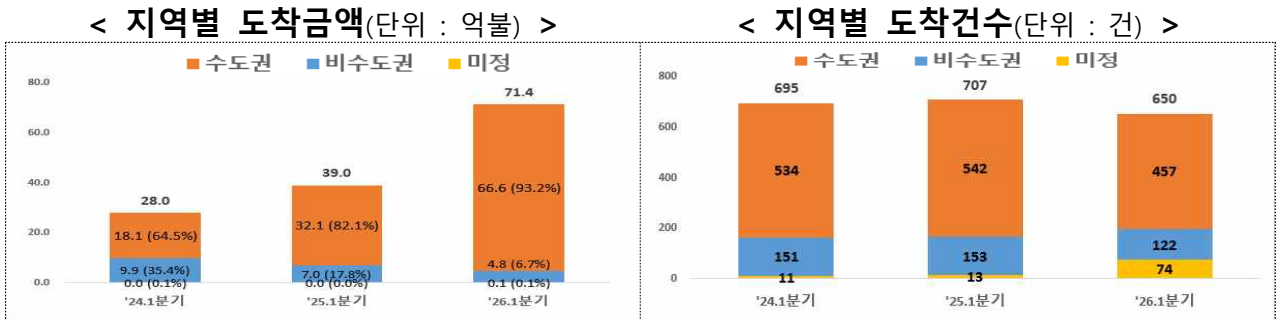


- (신규투자) 6.0억불(전년比 △52.0%)
 - 제조업(1.0억불, +40.8%) 증가, 서비스업(4.9억불, △58.5%) 감소
- (증액투자) 48.4억불(전년比 +154.9%)
 - 제조업(22.7억불, +498.8%), 서비스업(25.1억불, +81.2%) 모두 증가
- (건수) 신규투자(422건, △7.7%), 증액투자(231건, △9.4%) 모두 감소

5. 지역별

- 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- 미정(0.1억불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도착한 경우

- (금액) 수도권(66.6억불, +107.6%, 비중 93.2%)·투자지역 미정(0.1억불, +421.4%, 비중 0.1%) 증가, 비수도권(4.8억불, △31.2%, 비중 6.7%) 감소



○ (수도권) 66.6억불(전년비 +107.6%)

- 제조업(35.5억불, +1,578.7%), 서비스업(30.5억불, +2.2%) 모두 증가

- * 서울(60.0억불, +107.3%), 인천(1.7억불 +84.9%), 경기(4.9억불, +122.1%)

○ (非수도권) 4.8억불(전년비 △31.2%)

- 제조업(2.9억불, △24.9%) 감소, 서비스업(1.7억불, +32.0%) 증가

- * 증가 시·도 : 충남(2.39억불, +103.6%), 전북(0.28억불, +571.7%), 세종(0.14억불, +682.9%), 제주(0.07억불, +105.1%), 광주(0.02억불, +591.8%),

- * 감소 시·도 : 강원(0.59억불, △11.0%), 경남(0.41억불, △2.5%), 경북(0.39억불, △36.1%), 전남(0.24억불, △83.8%), 충북(0.08억불, △86.7%), 부산(0.07억불, △73.7%), 대전(0.06억불, △94.8%), 대구(0.04억불, △70.5%), 울산(0.01억불, △98.8%),

- (건수) 수도권(457건, △15.7%), 비수도권(122건, △20.3%) 모두 감소